

철강

박병철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수출 확대의 필요성

IMF 구제금융에 따른 경기 위축과 그로 인한 설비 투자 감소와 자동차, 가전 등 철강 수요 산업의 생산 정체, 재정 긴축에 따른 SOC 사업 지연 및 유보 등으로 철강재의 국내 판매가 1997년말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시황 악화로 인해 조강 생산량이 1997년에 당초 예상치를 웃도는 4,252만 톤의 실적을 보였으

나, 지난해 12월 이후 가동률이 저하되면서 생산량이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생산 증가를 주도하던 전기로 부문이 설비 확장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크게 하락하여 생산 증가율이 한자리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철강신문」 조사에 따르면 포항제철의 경우 1~2월 생산량이 전년 동기 3% 감소한 반면, 전기로 업체의 경우 20~35%나 감소하고, 강관을 포함한 판재류 업체들도 20% 정도의 감소를

〈표 1〉 주요 철강 업체 생산량 추이

(단위: 천 톤, %)

업종	업체명	1997년 월평균 생산량	1998년 1월		1998년 2월(추정치)	
				전년비 증감률		전년비 증감률
고로	포항제철	2,240	2,180	-2.7	2,100	-6.2
전기로	인천제철	290	234	-19.3	300	3.4
	동국제강	309	243	-21.3	255	-17.5
	강원산업	270	180	-33.3	170	-37.0
	한보철강	246	150	-39.0	150	-39.0
합금철	동부건설	16.7	17.7	6.0	18.0	7.8
판재	동부제강	160	130	-18.7	130	-18.7
	연합철강	100	73	-27.0	80	-20.0
특수강	기아특수강	25.0	20.0	-20.0	31.0	24.0
	창원특수강	69.2	57.1	-17.5	49.0	-29.2
강관	세아제강	61.3	42.0	-31.5	43.0	-30.0
	현대강관	65.8	45.0	-31.6	48.0	-27.1

자료: 「한국철강신문」(1998. 2. 23).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내수 부진과 더불어 환율의 급상승 및 금융 시장 불안에 따른 원자재 구득난과 원가 부담 상승으로 철강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수출의 확대만이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환율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고 국내 설비 확대 및 내수의 정체에 따라 수출 여력이 어느 때보다 늘어나 철강재 수출 확대의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생산 부문 및 주요 품목별·시장별 시황을 살펴 보고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점과 업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품목별·지역별 시황 전망

부문별·품목별 수출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면, 먼저 전기로 업체는 제품의 수출 비중이 15%에 머물고 주로 내수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하지만, 고철 수입에 의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업계의 수출 확대 노력으로 수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철근의 2월 수출량이 지난 1월 실적의 2 배를 넘는 21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수출량 17만 톤을 넘어서는 규모이다. 이같은 수출 확대는 내수 시장 위축과

가격 경쟁력 회복에 따른 것으로, 형강의 경우에도 30% 가까이 수출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재류의 경우 냉연강판이 1997년 준공된 광양4년연의 가동률 향상과 동부제강의 설비 증설로 생산이 대폭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 가전 등 국내 수요 산업 침체로 수출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 국내 냉연업체들은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수출 비중이 판매 물량의 40%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아연도강판이나 중후판도 생산 능력이 확대되어 수출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열연강판은 생산 능력이 확대된 냉연강판, 강관 등 차공정용 수요의 증가로 수출 여력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철강재가 내수 부진과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강화로 수출 여력은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 수출 지역의 철강 시황은 다소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7년 11월까지의 수출 실적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경우 금액 기준 수출 증가율이 물량 기준의 증가율을 하회하여 채산성이 낮아지고 있다. 1997년의 경우 경제 불안을 앞서 겪고 있는 태국을 제외하고는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역내 화폐

가치의 절하로 수입가가 상승하고 경제 불안과 경기 침체가 심화되어 역내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철강수출조합에 따르면, 1998년 동남아 지역의 수입 감소분은 전세계 감소분 660만 톤의 68%에 해당하는 44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1997년에는 조강류와 강관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비교적 호조를 보였으나, 시황 회복 지연과 역내 철강 업체들의 생산 능력 확대로 시장 여건이 불리하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재고 조정을 목적으로 수입 억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의 수요 감소에 따른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경쟁도 심화되어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시장은 상대적인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1997년 662만 톤에서 1998년 1,116만 톤으로 생산 능력이 증가하는 미니밀의 설비가동이 본격화되고 수입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지난해 연말 이후 시황이 약세로 돌아섰다. 특히, 최근에는 생산 능력이 증강된 동남아 지역 업체와 주력 수출 시장인 동남아 시장을 잃어버린 일본 업체의 대미 수출 공세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 철강 업계가 반덤핑 제소 등 수입 억제 노력을 강화할 전망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철강 수급은 호조를 보일 것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입이 늘어나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수입 규제도 곧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표 2〉 주요 지역별 수출 동향

	1996년 1~11월 누계		1997년 1~11월 누계			
	물량(천 톤)	금액(천 달러)	물량(천 톤)		금액(천 달러)	
				전년비(%)		전년비(%)
전세계	9,442	5,426	10,753	13.9	6,414	14.5
일본	3,070	1,473	3,289	7.1	1,501	1.9
중국	1,295	753	1,393	7.6	847	12.6
동남아	2,998	1,832	3,486	16.3	2,094	14.3
중동	248	145	272	9.7	161	10.7
유럽	109	174	102	-6.8	159	-8.7
미국	1,217	644	1,404	15.4	723	12.4
중남미	69	72	105	52.2	107	48.7
대양주	170	112	242	42.4	175	55.5

자료: 한국철강협회.

가격 경쟁력 회복과 업계의 수출 확대 노력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엔화 약세로 인해 수출 채산성은 악화되었다. 아시아 시장의 수요 부진으로 인도나 중남미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채산성 확보가 급선무이다.

수출 관련 애로 요인 및 타개 방안

1) 신용장 개설 정상화

수출 네고의 어려움과 L/C 개설 불가로 원자재 수입이 용이하지 못해 납기가 지연되고 있다. 수출의 경우 우선적으로 네고를 허용하고 수출용 원자재 수입의 우선적 허용 또한 절실한 형편이다. 원자재 수입이 산업 전체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환율 안정화가 급선무이나, 업계 차원에서도 지난 1월 구성된 수출촉진 대책반을 기반으로 금융 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수출입을 원활히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 시기, 수입선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 철강 원료 확보

철광석과 원료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

고 있으며, 고철은 전기로 설비의 확대로 수입이 계속 증가해 수입 의존도가 30% 가까이 상승해왔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 고철 확보 경쟁으로 국내 고철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998년의 경우 전기로의 생산 가동률 저하로 고철 수요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이지만, 총 수요량은 2,300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력 향상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원자재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고철의 경우 환율 변화에 대응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고철 수입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본, 유럽 등에서는 10~20% 정도를 수입해오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원료 시장에도 파급, 1997년 중반 160 달러대까지 상승했던 미국산 고철의 수입 가격이 1997년 12월에는 톤당 150 달러, 2월 말에는 140 달러대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럽산 고철의 주요 수입처였던 인도네시아의 구매 급감으로 가격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럽 지역에서의 수입 확대를 고려해볼 만하다. 물론, 국내 고철 공급 확대를 위해 저급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고철유통체계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표 3〉 고철 수급 동향과 전망

(단위: 천 톤, %)

	1996년	1997년 (추정)		1998년 (전망)	
			전년비		전년비
	13,827	15,220	10.1	18,000	18.3
국내 조달	10,796	11,320	4.9	14,700	29.9
국내 구입	3,031	3,900	28.7	3,300	-15.4
자가 발생					
수입(의존도)	5,115(27.0)	6,500(29.9)	27.1	5,000(2.9)	-23.1
수요 합계	18,942	21,720	14.7	23,000	5.9

자료: 한국철강협회.

한편, 선철의 경우 최근 쌍용이 호주·남미산 철광석으로 중국에서 선철을 생산하여 매월 12만~13만 톤을 수입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선철 수입(연간 300만 톤)의 60% 가량을 대만에 비해 1~2 달러 정도 높은 가격으로 외국 상사를 통해 수입해왔는데, 이같은 장기 계약은 선철 수입의 국내 업체 점유율 확대와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수출 확대 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설비 가동이 가능한 지역에 철원 확보를 위한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3) 통상 외교 강화와 수출선 다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유럽 등에서 대만,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증


대가 표면화되면서, 역내 철강 업체들이 덤핑 제소와 수입쿼터제 도입까지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 물량 및 가격 등에 대한 업계간 조정과 통상 외교의 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어 운송비 부담으로 경쟁력을 갖지 못했던 유럽·중동·남미·아프리카 지역에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만큼, 이들 지역으로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대한 수출 편중을 막고 수입 규제를 벗어나는 한편, 주력 수출 시장의 불황에 대비한 보완 시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일본 업체들의 경우에도 아시아 지역 수출이 어려워지자 연합방문단을 구성, 인도나 중남미 등 원거리 지역에 대한 공격적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4) 생산 구조 고부가가치화와 신수요 창출

IMF체제 하의 수요 감소와 수출 시장의 경쟁 심화, 수요의 고급화 등을 감안한 업계의 설비 투자 조정과 생산의 고부가가치화가 요구된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들의 경우 수요 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국산화함으로써 외화 절감과 함께 내수 시장 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철강 수요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스틸하우스나 스틸캔과 같은 철강재에 대한 신규 수요를 개발함으로써 산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업체간 협력과 합리화 및 재무 구조 개선

일본·동남아 시장의 시황이 호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간 공조를 통한 감산도 고려할 만하다. 수출 확대

인해 동종 업체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출혈 경쟁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협력 체제 또한 확립해야 할 것이다. 철강 업계의 부도 사태는 과도한 설비 확장과 비효율적인 투자에 기인한 것인 만큼,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체간 제휴나 합병도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개별 업체별로는 외환 등 금융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무 구조의 건실화와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업 체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기로 업체들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업체에 비해 높은 부채 비율, 낮은 경상 이익률 등으로 수익 구조가 취약한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고금리로 인해 선진국 대비 금융비의 부담이 매우 크다. 따라서 부동산 등 자산을 정리, 부채 규모를 축소하고 신규 투자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시장 불안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표 4〉 재무 구조 비교

(%)

	한국			미국	일본
	포항제철	전기로			
부채 비율	184	116	355	253	278
매출액 대비 경상 이익률	6.0	12.4	0.8	7.8	5.9
매출액 대비 금융 비용	6.1	5.8	4.8	1.6	3.4

자료: 한국철강협회.